

이야기로 꾸민 중세 지배엘리트들의 삶과 사랑

노만 F. 캔터의 《중세 이야기》를 읽고

차용구 | 중앙대 사학과 교수

노만 F. 캔터 지음 | 이종경 외 옮김
새물결/A5신/350면/14,500원



“중세인들이여. 나는 당신을 알 수 없었소. 왜냐하면 겹겹이 쌓인 두터운 휘장 뒤에 숨어 있는 아련하고 희미한 모습에서, 사제들에 의한 정형화된 표상들로 굳어져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당신을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요. 라틴어로 씌어진 딱딱한 고전 담론이나 단순한 초기 속어로 씌어진 글 속에서 당신은 과거를 넘나들며 무자비하게 승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상징적인 도구일 뿐이었소. 그렇게 둘러쳐진 장막 뒤에서 당신은 거대한 그림자요 얼굴 없는 거인일 뿐이었소.”

연극을 보는 듯한 대화체 문장의 묘미

미국의 중세사가 노만 F. 캔터가 1994년에 집필한 《중세 이야기》(새물결)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캔터는 이 책에서 4세기에서 15세기까지 살았던 여덟 명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313년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 교부철학자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샤를마뉴 시대의 석학 요크의 엘킨, 11세기 서임권 투쟁 당시의 교회 개혁가인 로렌의 훔베르트, 중세를 대표하는 수녀였던 빙엔의 힐데가르트, 헨리 2세의 부인으로 자신의 남편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아키텐의 엘레오노르, 중세 옥스퍼드 대학의 비판적 지식인 로버트 그로스테스트, 백년전쟁 당시 잔 다르크와 싸운 배드퍼드 공 존. 지은이는 이들 여덟명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부대끼며 사는 21세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전기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등장 인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화체 형

식을 빌어 전하는 본문을 읽어나가노라면, 마치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 여덟편을 차례대로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중세에 대한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를 방대하게 섭렵한 지은이는 상상력과 흥미로운 이야기식 문체에서 여느 이야기꾼 못지 않은 능력을 발휘한다. 여덟편의 독특한 전기를 통해 독자들은 중세로 흥미로운 독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인생 경험, 그들이 겪은 좌절과 극적인 위기들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등장인물의 심리적 상황 중점 기술해

문화사와 지성사에 유난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은이는 중세에 관한 방대한 연구서들을 참고해 중세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캔터의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주변환경으로부터 정신적 억압을 겪었고 그로 인해 근심과 갈등의 삶을 살았다는 점이다. 현대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아마도 사회·문화적 환경 못지 않게 심리적 요소들이 주인공들의 인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봤던 것 같다. 이는 중세인의 삶을 해석하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이다. 기존의 전기적 역사서와 차별되는 점은 등장 인물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지은이는 의도적으로 엘리트, 즉 지배 계층 출신의 카리스마가

강하고 특히 ‘장수’ 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상주의자였다. 그럼에도 지은이는 주인공들에게 그 사회 구석 구석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의논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등장 인물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그녀)가 문제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페이퍼백으로 이미 7판 인쇄에 들어갈 정도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했고, 프린스턴대 등에서 44년 간 중세사를 강의한 노교수의 학문적 성찰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는 지은이의 개인적인 시각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가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혔듯 “오늘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고 있는 너무나 진부하고 쓰레기 같은 중세 관련 저작들을 더 이상 참아낼 수도 없다”는 절박한 절규는 중세사에 대한 노학자의 학문적 애정과 열정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상상력을 동원한 창조적인 글쓰기”를 통해 어려운 주제를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그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데 성공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역사 서술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독자의 반응에 맡겨질 것이지만...●